

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믿고 당선시킨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등 국가경제가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 대운 하사업을 은근 슬쩍 다시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언론사 탄압도 거침없다. 종교편향을 사과도 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중죄인 취급한 인권 침해 주범을 그냥 놔둔 채 '국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덮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고,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현 정권의 태도는 마치 80년대처럼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국민 모두의 관심인 교육문제는 또 어떠한가?



불자 세상보기

박범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교육, 경쟁과 차별의 끝이 안 보인다

하는 국제중학교를 2곳이나 열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 각료회의, 서울교육청 회의를 열어 로 하고, '국민과의 대화'처럼 전국에 생중계해 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시험성적을 날마다 공개하듯 대통령과 각료를 영어실력도 공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 정권은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다. 학교보다 더 빠른 속도도우미 사교육에서 남보다 빨리빨리 배워 경쟁하란다. 그렇게 빨리 배워서 초등학교부터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초등학교이든 유아이든 국가의 재목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량으로 자라야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

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다. 최근 발표된 '기숙형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농어촌 지역, 즉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교이지만 성적중심으로 전형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다양화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층을 기준으로 편 가르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교다양화 정책의 목표는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을 선별해서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길을 터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일부 계층만이 선호할 수 있는 '명품'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 준 '고소영' '강부자' 등에 대한 보답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귀족' 대우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귀족학교'를 만든 것이다.

그런가하면 '4·15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것도 명품이다. 이들은 자율인데 내용은 학교장만의 자율이다. 청소년들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며 촛불을 든 이유는 자율화조치로 0교시와 우열반편성이 부활되고 이 때문에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정책으로 촛불이 주춤했다. 불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권력을 되찾자고 외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호아래 이름을 내고 가을을 맞이한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부모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는 국민의 권력

社說

'추석민심' 아닌 불심에 사과하라

8·27 범불교대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와 '법제화'를 약속하고 기독교계 인사들도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지관 스님에게 종교 화합의 길을 열어달라 부탁하며 손을 잡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목록부담으로 일관해 오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말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의미하는 입장표명의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어색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일어난 종교편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그렇게 고민까지 해가면서 절차와 모양새를 만들어야 할 일인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못했다는 말인가? 아무튼 불교계의 요구에 대한 반성차원의 사과가 아닌 민심수습 차원의 사과는 개운하지 않다. 20만 불교도가 땀방아에서 요구한 것은 추석민심을 의식해 등 떠밀린 사과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사과에는 불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조건을 조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진솔한 심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 늦은 사과가 오히려 화를 돋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석민심이 아니라 불심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한다.

범불교대책위의 의미와 할 일

불교계가 '헌법파괴 종교편향종식 범불교대책위'가 상설 전국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미 예고된 수순에 따른 대책위의 구성이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 8·27범불교대회에 대한 정부의 화답조차 없는 상황에서 향후 종교편향적 사례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전국조직을 갖추고 공식사회 종교편향 활동 감시, 국민통합과 종교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종교차별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종교평화를 위한 정책 활동, 지역별 불교대회 및 활동 지원, 시민사회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교편향의 감시 기능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 가겠다는 의지다.

대책위의 구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펼쳐질 개별적인 활동 지침도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야 할 사항들이다. 종교편향과 차별, 해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끈 기회에 확실하게 주시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책위의 활동이 당분간은 현정권에 대응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전개될 소지가 많지만, 활동범위와 방법이 안정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조정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교갈등은 중요한 사회문제다. 그 이전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종교편향이 가해지면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종교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책위가 긴 안목으로 펼쳐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간 조정기능이란 점을 명심하자.

공부 잘하는 처사

직장인인 고씨에게 친한 친구가 어떤 산중의 절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였다. "처사들만을 위해 마련한 자리야. 그 절에 대단한 노스님이 계시. 대중법문을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를 위해 특별히 법문도 해 주시기로 했다." 첫날 취침시간이 되자 친구와 고씨는 가만히 처소를 빠져나왔다. 둘은 자지 않고 밤새 정진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절의 모든 건물은 아홉시엔 잠그지만 친구는 주지스님과 잘 아는 사이였다. 미리 부탁해놓아서 그 날 밤만 산신각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했다.

약속대로 둘은 산신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까지 오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와서 문을 열어준다는 시자스님은 오지 않았다. 둘은 안 되겠다 싶어 산신각 옆 건물로 갔다. "여기 시자스님이 계시다고 했어."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취침시간이 지났으니. 그래도 또 방문을 두드리며 "스님, 스님"하고 불렀다. 잠시 후 환갑이 넘은 듯한 스님이 나오셨다.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지 잠옷 같은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스님, 산신각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왜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시자스님이 틀림없었다. 노스님의 시자스님이라 연세가 좀 되셨구나 싶었다. "스님, 죄송한데요. 주지스님께서 오늘 밤 산신각 문 열어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스님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아무 말 못 들었소." "그럼 리가요. 분명히 주지스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난 또

"이름으로 차별하면 공부 언제해?"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⑧ 나는 부처님의 시자

르는 일이에요." 연락이 안 되었구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주지스님께 전화로 확인하셔도 돼요." 자신만만했다. 둘은 "스님, 저희가 서울서 온 처사들이데요. 문만 좀 열어 주십시오. 네?" 하며 졸라댔다. 밤 늦은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스님께 좀 무례하다 싶었다. 그러나 시자스님이니 당연히 좀 도와 주셔야 싶었다. 무엇보다 주지스님말씀 아닌가. 내일은 주지스님의 은사 이신 노스님께서 특별법문도 해주실텐데. "우리는 특별한 불자이다" 하는 마음이었다. 뻔뻔하게 졸라대니 결국 스님은 가보자고 하였다.

반성 정진

잠옷차림이던 시자스님은 열쇠를 찾아서 비오는 마당으로 나왔다. 함께 산신각으로 갔다. 들어가서 초를 켜려니 보이지 않았다. 스님에게 "초가

없어요. 좀 찾아주세요" 하고 다시 부탁했다. 스님은 "잠시 기다려보시오" 하고 상단 아래의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찾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여기 있소" 하며 초와 성냥을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밤에 죄송했지만 고씨는 '시자스님은 절의 일 도와주시는 게 소인일 거야'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예불 때까지 정진하였다. 피곤했지만 몹시 뿌듯했다. 내일 큰스님께 법세 정진했다고 말씀드려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면 이 서울처사들에게 특별히 법문해줄 만하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하, 난 역시 열심 불자야.

다음날 법문시간이 되었다. 어떤 처사들은 녹음을 준비하였다. 절의 수심명 스님들도 큰스님 법문듣기가 어렵다며 모두 나와서 정좌하고 앉아 긴장된 분위기였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다. 마침내 들어오는 큰스님을 보는 순간

앗! 하고 눈을 의심하였다. 어쨌밤의 그 시자스님이였다! 가사장삼을 갖추고 위엄 있는 모습이 완전 딴 사람이었다. 아뵤쵸, 큰스님이셨구나. 순간 너무 당황하여 멍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고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시자처럼 문도 열어주고 초까지 찾아 주었지 않은가.

"나 시자 맞아요"

이를 어찌지. 큰스님께 조면이 삼배는커녕 일을 시켰으니! '지금 어디로 도망갈까' 안절부절했다. 순간 범죄에 높이 앉은 큰스님의 첫 마디가 귀를 때렸다. "서울서 공부 많이 한 처사들이 온다고 해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말스님, 큰스님도 몰라본 내 공부 실력이라니. 고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들었다. "나는 여기 회주스님이다"라고 한 마디만 해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안 하셨는지? 모두가 건강을 염려해 드린다는 큰스님을 비오는 밤에 일까지 시켰으니 주지스님이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 진땀이 나면서 '그래, 변명이라도 해야겠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감심했다.

법문이 끝나고 간신히 기회를 잡았다. 스님에게 "스님, 어제밤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자스님이신 줄만 알았거든요" 스님은 얼굴빛도 안 변하고 "나 시자 맞아요. 중이 부처님 시자 아닌가." 그리고는 "아직도 이름으로 사람을 분별한다면 공부는 언제 할니까" 하였다. 아, 부처님, 참화하옵소서. 다시 초발심으로, 하심부터! 죽자, 죽어, 죽고 싶다. 황수경(영국대 선학과 강사)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고객 20,000원

대폭 할인서비스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 기간: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1개월)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호타 비결서”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50,000 ⇒ 4만원

호타암 주지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송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에게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 의식적 조성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續) 백발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해동불교 임제종 입종 안내

중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원로원장	석지륜	총회위원장	지언
승적위원장	지해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감찰부장	오도
조직부장	묘화	포교국장	제덕
총무국장	제도	조직국장	제광

임제의원 선사의 가풍과 선범은 지암선사의 불법과 바람이라,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어느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멸하는 나고 묻지마라. 먹구름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며, 망망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불법이 하늘과 바다에, 임제종에 넘쳐 흐른다. 임제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었다. 할은 당대 후학들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단번에 뛰어 곧바로 해동불교임제종에 들어가면 감격이 큰스님이 되느니라.

각원장, 부장, 지역구 총무원장을 모집합니다.

스님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5매, 수행이력서 1통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석지암

총무원 : 여주시 들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전화 : 061)644-7273 / 010-3807-8428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도모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승, 각행원만의 근분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중지로 합니다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총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욱 (준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준 (해일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운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준준 (광원스님)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민,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 동 불 교 무 량 종

총본산 : 전남 여주시 소라면 관기 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명칭과 법계증서, 수호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